

부활절 두 번째 주일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sup>ND</sup> SUNDAY OF EASTER

주후 2021년 4월 11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84 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새 585)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4 번 시편 (Psalm) 46 편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문일호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b>출애굽기 (Exodus) 14:8-14</b>	고민영 집사
설 교 Sermon	<b>“다시 만나는 교회(22) – 담대함으로” (Gathering Together Again – With Courage)</b>	김일선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찬양: 윤흥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24 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새 222)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곳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겼으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자주 머뭇거리면서도,

진정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더 이상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낮애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일 2:15)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한글개역 **출14:13**)

“Moses answered the people, ‘Do not be afraid. Stand firm and you will see the deliverance the LORD will bring you today. The Egyptians you see today you will never see again.’” (NIV **Exodus 14: 1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4/11 (주일)	4/12 (월)	4/13 (화)	4/14 (수)	4/15 (목)	4/16 (금)	4/17 (토)
본문	레15	레16	레17	레18	레19	레20	레21
	시18	시19	시20,21	시22	시23,24	시25	시26,27
	잠29	잠30	잠31	전1	전2	전3	전4
	살후3	딤펢1	딤펢2	딤펢3	딤펢4	딤펢5	딤펢6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4/14수 오후7:30)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고후 1:12-24)
토요 새벽기도회 (4/17토 오전6:30)	“새 노래와 즐거운 소리로” (시 33:1-11)

지난 주일(4/4, 부활주일) 말씀

“다시 만나는 교회 (21) – 다른 모습으로” (막 16:9-14)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는 오늘 본문(막16장)에서,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이거나, (또는) 단순한 회생 정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과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1) 우리는 ‘실천적 불신앙’에서 먼저 돌이켜야 하겠습니다(막16:11,13,14). 그 이유는 ‘실천적 불신앙’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된)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 우리는 마음의 완악함과 단단함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막16:14상). 그리고, 3) 우리는 죄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회복된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첫번째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무려) 일곱 귀신 들렸던 (즉, 죄에 철저히 얽매었던) 자였지만, 예수님의 치유를 통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녀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또한 사이와 경계를 가로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매순간 다른 모습으로 새로워질 때, (또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며, (제대로) 증거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설/교/ 메/모